

## 80 해운·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(해수부)

### □ 과제목표

- 해운 선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해외 물류망 확장
- 친환경 선박의 건조기술 개발과 대체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

### □ 주요내용

- (한국해운 재건) '17년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 및 '18년 공사 발족 이후 해운 선사에 대해 원스톱 지원 시행
  - '17년 국적선사 간 협의체인 한국해운연합(KSP)을 결성하여 중복노선 구조조정과 신항로 개척으로 국적선대의 경쟁력 제고
- (해운·조선 상생협력) '18년부터 외항선박에 친환경선박 폐선보조금 지급, '20년 연안화물선으로 확대하여 '22년까지 총 100척 건조
  - '17년부터 친환경·고효율선박 기술개발 착수, '20년 LNG추진선 기반 구축, '22년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로 조선산업 활력 회복
- (수출입 화물 안정적 운송) '19년부터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하여 비상시 화물운송체계 구축, 선·화주 상생으로 국적선사 이용비율 확대
- (물류망 확충) '17년 해양산업클러스터 2개 지정 및 '19년 완공, '17년부터 부산북항 상부시설, 광양항 묘도, 인천항 영종도 재개발 착공

### □ 기대효과

- '22년 해운산업 매출액 50조원('16년 29조원) 달성,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00만TEU('16년 47만TEU) 달성으로 해운강국 위상 회복
- '22년까지 친환경 선박 100척 건조 등을 통해 해운-조선 상생구조 확립